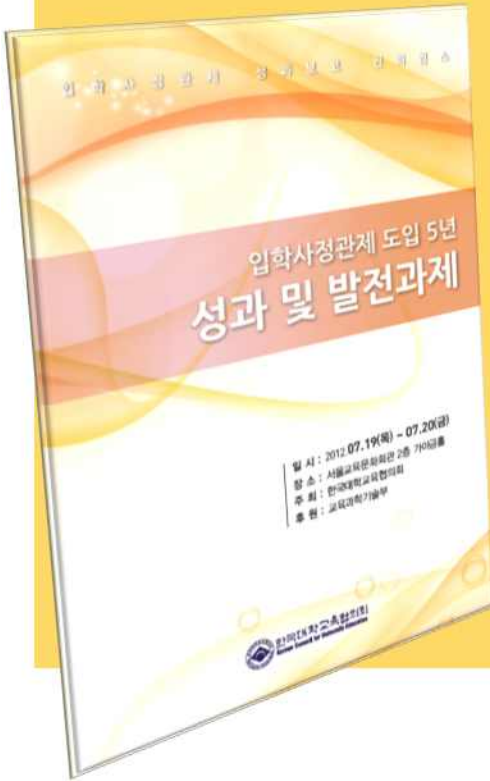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보고’ 콘퍼런스 개최



입학사정관제, 5년간의 성과 및 발전과제

- 1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학점뿐 아니라 리더십·학교적응력·진로의식 더 높아
- 2 고교 현장은 동아리·봉사활동 활성화 되고, 교사 권위 높아져
- 3 인성평가 강화하면서 고교의 인성교육 활성화 촉진
- 4 대학은 중도탈락률 낮고 등록률 높은 전형으로 평가
- 5 사정관제 발전 위해서는 맞춤형 추수지도, 전형 투명성 강화해야
- 6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대학생들, 교육기부 동아리 “Dream 멘토단”을 만들어 직접 후배 상담 나서

대교협 동정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보고 콘퍼런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를 2012년 7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입학사정관들이 입학사정관의 평가업무에 대해 직접 소개하는 ‘입학사정관 공감토크’, 입학사정관제

로 진학한 대학생들의 교육기부 동아리인 ‘Dream멘토단’ 출범식, 입학사정관제 이후 현장 변화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설명, 각종 학회가 참여한 학술대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교수,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관련 학회 및 언론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한 선배들,
중·고교 후배들 진학상담 위해 “Dream 멘토단” 만든다.**

◦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중·고교 후배들을 위해 진로진학코치단인 “Dream 멘토단”을 만들 예정이다.

◦ “Dream 멘토단”은 현재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2개 대학 1~4학년생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중·고교생들에게 사정관 전형의 실제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졌다.

◦ 이들은 고3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전형 상담보다는 중3이나 고1 중 아직 진로진학계획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의 “선배가 들려주는 입학사정관제” 코너 및 각종 대입박람회 등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멘토단 구성원 중 지방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건의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방문 상담도 계획하고 있다.

* 민경인(성신여대, 3학년) “부산에서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하면서 정보가 없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꼭 지방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다”

◦ “Dream 멘토단” 대표인 김성현(중앙대, 4학년) 학생은 “우리가 도와준 학생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들어와 그들이 또 후배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각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동아리를 매개로 규모를 더욱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인성평가 강화 동참, 고교 현장에서도 인성평가 강화 움직임 나타나

◦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대학들이 인성평가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 서울대는 수시모집은 물론 올해 정시모집에서도 면접을 통한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인·적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 및 경영대학의 논술을 면접으로 대체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이화여대는 올해부터 “사실 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면접 방식에서 벗어나 가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수험생의 즉각적인 판단 및 반응을 알아보는 상황 면

접(Situation Interview)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의 인성, 상황판단 및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려대는 “서류 및 면접 평가 시 학생의 성실성, 리더십, 공선사후 정신 등 인성영역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시 추천 전형 등에서 높은 면접 비중(40%)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 서강대는 입시위주의 고교 교육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인성교육과 예체능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성과 예술·체육 체험활동을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일권 대광고 교사는 “대입 인성평가 강화로 학교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밝혔으며,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소속 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면접 연습과 연계한 생활지도가 강화되었다. 면접을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말하는 법, 인사하는 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효과가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고등학교 조갑용 교장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3월부터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인, 만화가 등이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며 고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 대광고등학교는 “생활관 교육”(3박 4일) 을 운영 중,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 기본 소양 등을 기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제로 2013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성균관대의 경우, 동 방안 발표 이후 현장 교사들로부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를 다수 들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김윤배 입학처장은 “현장 교사들로부터 인성평가에 대한 격려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다만, 진로진학상담교사들과 달리 생활지도부장은 아직도 대입에서 인성평가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며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논문 발표】

- ① 사정관제 입학생 학점, 학교생활 적응, 대학 만족도 높애(이동혁)
- ② 사정관제 입학생 장학금수혜율, 리더십, 진로의식 높고 교내외 활동 더 활발(양명희)
- ③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과 반영 비율은 감소 추세, 면접·서류평가 등 종합적 평가방법 늘고 있어(이호섭)
- ④ 사정관제가 비교과활동에 미친 영향은 크나 교과활동에는 간접적으로만 영향, 교과활동 평가 내실화 필요(김재춘)
- ⑤ 입학사정관 전형의 발전 위해서는 전형 단순화하고, 10% 이상으로 규모 늘리되, 점진적·단계적 확대 필요(김안나)

◦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추수지도」 (건국대 이동혁)

-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학업 부문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

- 대학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며 전과나 자퇴 의사가 별로 없어 중도탈락률이 낮게 나타남

* (참고) 성균관대 만족도 조사 결과(2012학년도)

√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은 대학생활과 전공선택에서 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보다 더 만족

√ 그러나 학습량, 학교 시설 중 토의 및 토론 공간 부족, 봉사활동 기회에 대한 불만은 일반전형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습부진지도, 학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 (경희대 양명희)

- 13개 대학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이 일반전형 입학생들에 비해 대체로 학점(GPA) 및 장학금 수혜율은 높고 중도탈락률은 낮게 나타남

*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GPA 특징

(전형별) 리더십·교과우수자·글로벌 전형 입학생들의 성적이 높음

(계열별) 인문·사회·국제계열은 높고 자연·공학은 비슷하거나 낮음

- 정의적 특성을 보면, 사정관전형 입학생의 리더십, 학교만족도, 학업 태도, 진로의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주도학습, 대학생활적응도, 학업태도 등의 경우에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이 대체로 우수하나, 일부 대학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입학사정관제에서 정의적 특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문성도 제고되어야 할 것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원고 요약)>

| 항목 | | 특징 |
|--------|-----------------|---|
| 인지적 특성 | 학점(GPA) | · 학교별·연도별 차이 있으나 대체로 사정관 전형이 우수 · (리더십·교과우수자·글로벌 전형) 사정관 전형이 우수 (인문·사회·국제계열) 사정관 전형이 우수 |
| | 중도탈락률 | · 사정관 전형이 낮음 |
| | 장학금수혜율 | · 사정관 전형이 높음 |
| 정의적 특성 | 자기주도학습 | · (내재적 가치, 계획, 조력 추구, 자기효능감, 인지전력, 점검, 시간과 공부조절, 공부환경조절) 사정관 전형이 높음 |
| | 대학생활적응도 | · (사회적 적응, 일반상황에 대한 적응) 사정관 전형이 높음 |
| | 리더십 | · (대인관계, 조직능력, 타인배려와 팀워크, 비전과자신감, 추진력과 자기관리, 과제 책임감, 정직과신의, 사회헌신) 사정관 전형이 높음 · (도전정신) 사정관 전형이 낮음 |
| | 학교적응도·만족도, 학업태도 | · 사정관 전형이 높음 |
| | 진로의식, 진로성숙도 | · 사정관 전형이 높음 |

◦ 「입학사정관전형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 (이호섭 숙명여대)

- 최근 3년간 주요 30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분석한 결과 선발인원은 증가하나 전형유형은 축소되어 사정관 전형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정관 전형 중 특별전형의 비중은 축소되고 일반전형(특별한 지원자격 제한이 없는 전형)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음 ☞ 일반전형 내에서 대학 인재상에 맞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 학생부 교과성적에 대한 반영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면접과 서류 평가 등 종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전형이 확대되고 있음 ☞ 학생부 평가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것 지양해야

- 사정관 전형의 등록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내신 비중 높은 전형에 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의 등록률이 더 높아 ☞ 대학간 신입생 모집경쟁에 유용한 전형방식으로 활용 가능

◦ 「입학사정관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김재춘 영남대)

-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동아리, 진로 활동 등 비교과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변화

* 비교과활동 변화 양상

√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형식상 편성하고 자습시키던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됨

-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교사와 더 많은 상담을 하게 됨
- √ 입학사정관이 학교에 방문하는 등 고교 대학 연계 활동이 증가
-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탐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사례 등 증가
 - 고교 교과활동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교사의 권위가 높아져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교사에게 자주 질문하는 학생이 생겨나는 등 간접적 효과는 있음
 - 입학사정관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도 내실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이 읽을 만한 교과활동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함
 - 또한, 교사나 학생이 전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형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미치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영향 : 입학사정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김안나 이화여대)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특성화,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적성과 재능에 따른 전공 선택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임
- 그러나 대학 재정의 취약성, 대학 자율성의 한계, 과도한 시장경쟁, 성과중심주의, 학력주의에 기인한 대입경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은 입학사정관제가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교육의 이념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성찰하고,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함께 모집단위 및 전형요소도 단순화 필요

* 전형 단순화 위해 미국과 같이 학업능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와 교사의 추천서, 특별활동 등을 주로 참고하고 면접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하는 미국의 평가방식 참고 가능

-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학생 구성 다양화에 맞추어 맞춤형 적응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고교 교사들, 입학사정관제가 고교 교육 정상화, 진로지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금산고등학교 정대옥 교사는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한번 성적이 떨어진 학생도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학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독서토론 같은 특색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로진학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어 교사들도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고 발표
- 부산 대동고등학교 김재원 교사는 예전에는 “OO대학 가려면 몇점 받아야 되요?,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예요?”라는 질문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OO학과가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OO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해요?”라는 진로와 연계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대전 대성고등학교 김동춘 교사는 입학사정관제에서 평가의 관심이 양(量)→질(質)→가치(價値)로 변화하면서 학생부도 변화하고 있다고 밝힘

* 입학사정관제 평가 중점에 따른 학생부 변화 양상

- √ (양적 평가 중심기: 08~09) 학생부 양을 늘리는데 집중
- √ (질적 평가 중심기: 10~11) 모집단위를 고려한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를 기재하고, 특기사항 기록이 내실화되기 시작. 학생부 보완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조작 논란 겪기도
- √ (가치 평가 중심기: 12~) 학생부 길라잡이 짜깁기에서 탈피, 활동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기보다 학생의 활동 내용 이면까지 파악하여 기록, 학생부 기록을 위한 상담일지 기록 활성화, 동아리 내에서 개인의 활동 내용 기록, 봉사활동 동기과 특기사항 중심으로 기록

컨퍼런스 내용은 EBS TV 및 EBSi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 입학사정관 등을 위해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EBS “TV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방영(12.8.9(목) 12:10~13:00)될 뿐만 아니라 EBSi에 접속하여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계획만 갖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같은 소재도, 크레인 같은 장비도 없던 시절 우리 조상이 지었던 한옥을 만들어 봄으로써 나무와 돌로도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감탄스럽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오충열·순천고 2)

□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시를 제대로 읽는 방법, 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강의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장래 희망이 시인이라고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어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정희진·정읍 서영여고 1)

□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그냥 취업을 이유로 간호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갈팡질팡했는데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김주원·금호고 3)

□ 고등학생들이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여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입학처(처장 한길영)가 2012년 조선대학교 입학사정관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Good To CU'의 하나로 7월 14일 개최한 '전공체험의 날' 행사에 참가한 고교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날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고등학교 1학년~3학년 학생 3백 명이 조선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부)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교육과정으로 원활한 이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 참가 학생들은 오전 10시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오후에는 학과별로 전공 관련 특강과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건축학부는 신용주 교수가 한옥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최재혁 교수가 건축 구조와 공학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학과는 황선영 교수가 병원 간호사 업무에 대해 소개했으며 언어치료학부는 신문자 교수가 언어재활사에 대해 소개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국어국문학과, 식품영양학과, 경영학부, 특수교육과, 아랍어과, 상담심리학과 등 총 10개 학과에서 체험, 실습, 강의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 '전공체험의 날' 행사는 고등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지원하고, 학부(과) 홍보를 통해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있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여자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주자문)는 7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절강성에 소재한 절강 미디어대학교, 횡점영상직업대학, 온주여자대학교, 닝보영

강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2, 3+2 교육과정을 포함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제반 교류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절강미디어대학교는 2+2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중국 대학교의 학위 및 광주여대의 학위를 모두 받는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현재 4명의 유학생이 광주여대에 재학중이며 다음 학기에 5명이, 내년에는 16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횡점영상직업대학은 3+2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3+2 정규교육과정은 3년 동안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광주여대의 입학 심사를 통과하여 입학, 2년동안 전공과정 교육을 받고 학위수여규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광주여대의 본과 학력증서와 학사 학위증서를 수여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광주여대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온주여자대학교는 3학기에 9명의 유학생을 광주여대에 진학시킬 예정이며, Ningbo 영강직업고등학교는 중국의 명문여고로 광주여대와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세부적인 교류를 진행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절강미디어대학교와 횡점영상직업대학은 해마다 학술교류 및 미용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며, 광주여대의 미용과학과, 유아교육과 등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협정체결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성대학교

□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교육학과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경성대 교육학과의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과 내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졸업생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을

각각 15명씩 선정하고, 이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시켜 준다. 멘토들은 멘티들과 상호교류 및 소통을 통해 대학 생활과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많은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여 멘티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멘티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학과 진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멘토들은 직접적인 개인 학습지도는 하지 않으며, 멘티들의 인성적·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 프로그램 개설에 앞서 온 경성대 교육학과 박은정 조교는 "학업에 지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멘토들을 친구 같은 오빠나 언니로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또 교육학과 2학년 김동희 학생은 "작년에는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들과 멘토-멘티를 맺어 정말 즐겁게 활동했고 느낀 바가 많다. 그 학생들과 아직도 연락하며 친자매같이 지내고 있다. 이번에 학과에서 개설하여 제공하는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꼭 참가할 생각"이라며 프로그램 참가 의지를 드러냈다.

□ 교육학과 학과장 강성빈 교수는 "무엇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멘토들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므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가 한 번 맺어지면 멘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며, 매년 수시로 참가 신청을 더 받을 계획이다. 현재 경성대 교육학과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티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멘티가 15명이 될 때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진로체험 활성화, 학부모 연수도 활발

- 시도 교육청과 738개 기업간 교육기부 MOU체결 -
- 국고 30억, 시도 61억 투자, 연간 67만명 진로체험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해('12.7.1. 기준) 시도교육청의 진로체험 지원 및 학부모 진로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의 진로체험 지원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학부모 연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738개 기업·공공기관 등이 진로체험 교육기부 MOU 체결 및 체험장을 제공하고 있다.

◦ 중학교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을 필수화하는 등 직업체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위 학교에서의 체험처 발굴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기업 및 공공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 진로체험 제공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MOU를 맺은 기업을 보면 경남이 219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4개, 충북 78개, 전남 69개, 대구 56개, 경북 22개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 10개 미만 교육청은 강원(9개), 경기(6개), 울산(5개), 전북(3개)이다.

□ 전체 교육청에서 진로체험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고 30억원, 지방비 61억 원 등 91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학생 67만 명의 진로 체험을 지원한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9억 원이며, 서울 11억, 부산 9억6천, 대구 9억1천, 충남 5억2천, 강원 5억 등

이다.

□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은 구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업장을 체험처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각 자치구와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 센터를 통하여 관내 다양한 사업장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강동, 노원, 금천구에 설치(구청과 교육청 운영비 부담)

□ 강원도교육청은 좀 더 본격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2014년에 개원한다.

◦ 진로교육원은 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 검사, 상담, 멘토링, 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 밀착형 진로체험센터이다.

□ 한편, 전국적으로 35만 명의 학부모가 각종 진로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진로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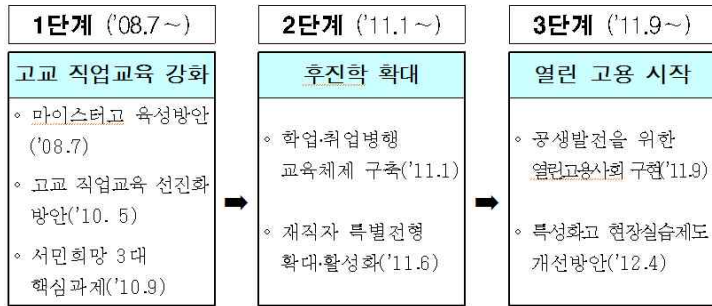
◦ 서울이 12만 명의 학부모 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충남이 5만4천 명, 대구 3만2천 명, 인천 2만5천 명 등이다.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 마련

- 마이스터고 명칭 법령화 및 안정적 재정지원 강화
- 재직자 특별전형 후진학자를 위한 "Hub 대학"지정, "특성화학과"설치
- 이공계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고용보험으로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와 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7월 13일(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 교과부는 지난 '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일련의 「고졸시대·열린고용」정책으로 인해



◦ 고교 직업교육이 진학 중심에서 취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도 고졸 채용에 나서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 '13.2월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84.8% 채용약정('12.3.1기준)
-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취업률 : 63.6%('11년 10월) → 89.7% ('12년 4월)
- * 특성화고 졸업자 대학진학률 : 73.5%('09년) → 50.2%('12년 잠정)

◦ 동 정책이 학교와 기업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동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에 대해 교과부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 고졸시대·열린고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직업교육-취업-능력개발-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열린 채용과 열린 인사관리를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과 대학의 후진학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보다 많은 대학과 기업이 선취업-후진학과 열린 고용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